

第 1 部 특별 기고

- 1 ● — 로타리안 · 非로타리안 모두에게 훌륭한 意思 소통 역할
— 마지막베 RI 회장
- 2 ● — 감동과 靈感불어 넣은 中斷없는 努力을 致賀
— 아버사노 The Rotarian誌 편집장
- 3 ● — 活動 함께해온 일본 회원으로서
40주년을 진심으로 祝賀
— 中山義之 로타리노 토모 위원장
- 4 ● — 로타리코리아誌는 한국 로타리안들의 指針書
— 李東建 로타리 財團 관리위원



창간 40주년 1963~2003 350호

祝辭

로타리안 · 非로타리안 모두에게 훌륭한 意思 소통 역할

조나단 마지약베 / 국제로타리 회장



친애하는 동료
한국 로타리안 여러분,

로타리코리아지의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바입니다.

또한 모든 로타리클럽을 대표하여 귀 지역 잡지의 4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로타리코리아 40년의 역사: 1963~2003'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느 조직이든 성공하는 비결 중의 하나는 그 구성원들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입니다.

로타리코리아는 로타리안들 뿐만 아니라, 비(非) 로타리안들에게도 훌륭한 의사소통의 도구 역할을 해왔습니다.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지역잡지를 이용하

여 새로운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특별 행사들에 대해 서로 아이디어들을 교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에게 로타리의 이상을 권고하고 불어넣어 주는데 활용하시길 바라 마지 않습니다.

로타리코리아지에는 도움의 손길을 뻗어 줄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실려 있습니다.

40년 전, 한국이 단독 地區에 지나지 않았을 때, 한국 로타리안들은 봉사의 이상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서로서로 더욱 긴밀하게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03~04년도에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인류애를 널리 알림에 있어서 개인적인 참여에 초점을 맞추면서, 로타리코리아를 이용하여 우리의 사랑을 대양과 국경을 넘어 펼쳐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을 기꺼이 돕고자 나설 때 하나의 도움의 손길이 여럿으로 모이고, 그 도움의 손길이 이룰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로타리와 로타리안들의 우렁찬 목소리로서의 역할을 맡아 갈 로타리코리아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나단 마지약베
국제로타리 회장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JONATHAN B. MAJIYAGBE
President, 2003-2004

August 2003

Dear Fellow Rotarians in Korea:

Congratulations on the 40th anniversary of *Rotary Korea*. I send you warm greetings on behalf of all Rotary clubs as you celebrate this 40-year milestone of publication of this regional magazine, *History of Rotary Korea, 1963-2003*.

One of the keys to the success of any organization is the successful communication between its members. *Rotary Korea* is an excellent communication tool not only for Rotarians but also for non-Rotarians. It is my hope that you will continue to use this regional magazine to share new projects and program ideas, special events, and most of all to encourage and inspire each other to the ideal of Rotary. This publication contains many ways to **Lend a Hand**.

Forty years ago, when Korea had just one district, Rotarians felt that closer communication with each other was required to promote ideals of service. Thus, they laid the foundation for a regional magazine in Korea. In 2003-04, we use *Rotary Korea* to help us spread our love across oceans and national borders, focusing on personal involvement as we celebrate our shared humanity. Working together, ready and willing to help our brothers and sisters in need, one hand can become many and there is no limit to what the helping hands of Rotary can accomplish.

I wish *Rotary Korea* great success in the future as it continues to be a strong voice for Rotary and Rotarians.

Kind regards,

Jonathan B. Majiyagbe
President, Rotary International

祝辭

感動과 靈感불어 넣은 中斷없는 努力을 致賀

빈스 아버사노 / THE ROTARIAN誌 편집장
국제로타리 통신부 책임자



치하와 함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 여름 브리스베인에서 개최된 지역잡지 편집장 세미나에서 만나 뵈신 申東峻 편집장께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로타리코리아지와 그 독자들에게 대한 편집장의 각별한 헌신의 정을 명확하게 느낄 수 있었으며, 특히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을 통해 모든 참가자들이 로타리코리아의 목적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한층 더 높이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훌륭하게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해 온 귀 지역잡지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로타리코리아의 발행 매 호수(號數)마다 이것을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빈스 아버사노
THE ROTARIAN誌 편집장

로타리코리아 귀중

귀 지역잡지의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정표적 의미를 갖는 이 중요한 시점은 과거를 돌아봄과 동시에 미래를 내다보아야 할 중요한 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로타리코리아는 지역잡지들이 한 가족으로 모여 이룬 로타리 세계공식잡지 (Rotary World Magazine Press)의 중요하고도 귀한 일원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훌륭한 발간을 하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훌륭한 글들을 통해 한국의 로타리안들에게 끊임없는 감동과 영감을 불어넣어 주고자 하는 귀 지역잡지의 중단없는 노력에 높은

ROTARY INTERNATIONAL



One Rotary Center
1560 Sherman Avenue
Evanston, IL 60201-3698 USA

8 August 2003

Dear *Rotary Korea*,

Congratulations on the celebration of your 40th anniversary. Milestones such as this are a time to look back to the past, and to look forward to the future. *Rotary Korea* has been an important and valued member of the family of regional magazines—the *Rotary World Magazine Press*—for many years, and we look forward to many more years of producing a fine publication. Your continuing efforts to provide stories and inspiration to the Rotarians of Korea, through the pages of your excellent publication, are both commended— and sincerely appreciated.

Special thanks to Editor Dong-Joon Shin who I had the chance to meet last summer in Brisbane, at the Regional Magazine Editors Seminar. His dedication to *Rotary Korea* and its readers was clear. At the same time, his contributions to the seminar, in helping everyone understand the mission of *Rotary Korea*, led us all to a deeper level of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gain, congratulations on a job well done.

Sincerely,

Vince Aversano
Editor-in-Chief, *The Rotarian*
Manager, Communications Division
Rotary International

祝辭

活動 함께해온 일본 회원으로서 40주년을 진심으로 祝賀

中山 義之(나카야마 요시유키) / 일본 '로타리노 토모' 위원장



던 시기에 로타리안이 아니었던 회원들 사이에도 새로운 우정이 싹틔었습니다.

우리 로타리안은 '선의(善意)'를 공통점으로 하여 모인 보통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로타리 활동'이란 인간의 선의를 믿고, 서로가 배려하는 마음을 발판으로 하여 인간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살기 좋은 사회, 평화로운 세계'를 목표로 개개인의 마음이 주체가 된, 풀뿌리 운동인 것입니다. 이것이 로타리의 생성발전의 기초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로타리코리아의 창간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성격이 결합된 것이 로타리입니다.

이웃나라인 한국 로타리와 일본 로타리는 많은 활동을 함께 해왔습니다. 많은 클럽이 자매결연을 맺고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만, 그것만이 아니라 함께 지역을 위해, 또 나아가서는 국제봉사활동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우리들 로타리안으로서 행여 '신념의 상실'이나 '행동의 포기'가 없도록 서로 힘써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로타리코리아'와 '로타리노토모'에는 두 나라 로타리의 밀접한 관계를 반영하는 기사가 많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잡지의 역대 위원장, 편집장이 한일 잡지교류를 통해 정보교환을 하며 우정을 쌓아왔습니다.

한일 양국의 로타리안 서로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손에 손을 잡고 로타리 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로타리코리아'와 '로타리노토모'의 두 잡지가 앞으로 변하지 않는 협력으로 양국 로타리안을 위해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9월에는 오랜만에 한일친선회의가 재개되어, 많은 로타리안들이 재회해서 우정을 재확인하고, 일찍이 한일친선회의가 개최되었

創刊 40周年 を祝して

2003. 8.

ロータリーの友 委員長 中山 義之

『ロータリー・코리아』の創刊40周年を, 心よりお祝い申し上げます. 隣國である韓國のロータリーと日本のロータリーは, 多くの活動を共にして参りました. 多くのクラブが姉妹クラブの締結をして友情を育てておりますが, そればかりではなく, 共同でお互いの地域のために, さらには海外への奉仕活動を行ってきました.

『ロータリー・코리아』と『ロータリーの友』には, 兩國のロータリーの密接な關係を反映した記事がたくさん掲載されています. また, 兩誌の歴代の委員長, 編集長が, 情報交換をし, 友情を育ててまいりました.

9月には, 久しぶりに日韓親善會議が再開され, 多くの知己が再會し友情を確かめ合い, さらには, かつて日韓親善會議が開催されていた頃にはロータリアンでなかった會員同士の間, 新しい友情が芽生えました.

私たちロータリアンは, 「善意」を共通項にして集まったごく普通の人たちです. そして, 「ロータリー運動」は, 人間の善意を信じ, 「思いやり」を足場にした, 人間を愛し尊ぶ人づくりにより, 「住み良い社會, 平和な世界」を目指している個人個人の心が主體となった, 草の根運動なのです. このことが, ロータリーの生成發展を招いたのだと私は思います.

「考えること」と「行動すること」の2つの性格が結合されたものがロータリーです. 私たちロータリアンは, 「信念の喪失」と「行動の放棄」のないようお互いに切磋琢磨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日韓兩國のロータリアンが互いに切磋琢磨し續けるよう, また, 共に手を携えてロータリー發展の礎となるよう, 『ロータリー・코리아』と『ロータリーの友』の兩誌が, 今後とも變わらぬ協力の下, 兩國のロータリアンのために寄與できることを望んで止みません.

祝辭

로타리코리아誌는 한국 로타리인들의 指針書

李東建 / 로타리 財團관리위원



지난날 6.25 전란을 겪고 그 어려웠던 ‘보릿고개’, 그리고 국가경제를 비롯한 사회 모든 분야가 많은 어려움 속에 신음하던 1960년대 초 로타리의 꿈을 신고 힘겨운 첫 발걸음을 내디딘 로타리코리아가 이젠 4만 5,000 한국 회원들의 지식의 보고(寶庫)이자 그 에너지를 지탱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음을 우리는 큰 긍지로 삼고 있습니다.

통계에 나타난 한국로타리의 재단 기여도와 회원수를 국가별로 본다면 세계 3위, 회원수 6위 - 이 모든 성공들은 모두가 로타리코리아 같은 활력과 지식이 가득 담긴 ‘공식지역잡지’라는 영양공급 즉, 힘의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타리코리아는 한국로타리가 지난 날 어려울 때마다 힘과 용기를 서로 나누었고, ‘하면 된다’는 강하고도 끈질진 집념을 잉태케 한 산실이었습니다.

로타리가 꿈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곳이라면 로타리코리아는 한국 로타리인들의 꿈을 현실로 바꾸게 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지침서였습니다.

창간 4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나아가 멀리는 국제로타리 창립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그동안 로타리코리아의 오늘이 있기까지 힘써 주신 모든 로타리안과 실무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로타리코리아 창간 40주년을 축하하며 이 기쁨을 4만 5,000여 한국로타리 회원들과 세계의 모든 로타리안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로타리안의 3대 의무는 출석, 회비납부, 공식잡지 구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로타리가 처음 클럽결성으로 발족한지도 어언 76년이 흘러 지금은 17개 지구 1,200개에 가까운 클럽들로 확대되었지만 단독 지구로 첫 출발한 것은 1961년 7월 1일부터였습니다.

그리고 2년 3개월이 지나서야 회원 공론(公論)의 광장(廣場) 역할을 담당할 ‘로타리코리아’가 탄생했습니다.

지금 초기의 로타리코리아지를 펼쳐보면 그 체재나 내용에 있어 금석지감(今昔之感)을 금할 수 없습니다.

+ C K +